



‘실력 광주’ 쟁점...단일화·부동층 변수

광주시교육감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광주시 교육감 선거 열기가 조기에 달아 오르고 있다. 선거 8개월여를 앞둔 현재 4파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재선 도전이 유력한 이정선 현 교육감에 맞서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2013~2014)과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감(2015~2018)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단일화 여부’와 ‘대표 공약’이다. 우선 이정선 교육감에 도전하는 나머지 3명의 출마예정자 단일화 성사가 현재와 경쟁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김용태 출마예정자의 최근 여론조사 변화 추이가 흥미롭다.

전교조 전 광주지부장 출신인 김 출마예정자는 대표 직함 논란이 일면서 가장 큰 이득을 봤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노무현재단 광주 시민학교장’ 직함을 사용할 때 현 이정선 교육감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다. 이는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로 이어졌다.

결국 정성홍, 오경미 출마예정자에 이어 이정선 교육감도 여론조사 참여 거부율에 연이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김 출마예정자는 ‘전 광주전자공교 교장’ 직함으로도 19%대의 지지율을 얻었다. 결국 상대의 노이즈마케팅이 김 출마예정자의 존재감만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오경미 출마예정자의 단일화 참여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지난 여론조사에서 오 출마예정자의 주요 지지층이 중도보수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교조 출신 출마예정자들과 단일화할 경우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외려 오 출마예정자의 표가 이정선 교육감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때문에 ‘반 이정선 연대’를 구축한 출마예정자들의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출마예정자들의 중도 사퇴도 기대하기 어렵다. ‘깜깜이’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각자 10% 정도의 득표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다. 득표율이 10%만 넘으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15% 이상 얻으면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어 선거일까지 완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각 출마예정자들의 대표 공약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정선 현 교육감에 김용태·정성홍 전교조 출신 ‘도전’ 오경미 ‘첫 여성교육감’ 목표로 본격 준비...지지세 결집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공약은 ‘학력’의 회복이다.

지난 정취국 교육감 시절(3선·12년) ‘실력 광주’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전교조 출신 교육감에 대한 불신이 지역사회에 넓고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에 대한 거부감 표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출마예정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먼저 이정선(66) 현 교육감은 광주교대 총장을 거쳐 지난 2022년 직선4기 광주교육의 수장으로 당선됐다. 지난 3년간 ‘다양한 실력’을 기치로 광주교육을 이끌면서 ‘실력 광주’의 위상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직업계고 재편과 함께 실질적인 취업 성과를 올리면서 ‘특성 화고 붐’을 일으킨 것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교육부 공모사업 등으로 831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재정 건전성을 높였다.

이 교육감의 주요 교육정책 중 ‘365 스테디카페’, ‘1교고 1대입리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등은 지금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매니페스트 실선본부가 시행한 ‘전국 교육공공 약 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최우수인 ‘SA등급’을 획득했다. 또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 국가 정책 추진 실적’에서 모든 평가 부문을 통과하면서 최우수 교육청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김용태(61) 출마예정자는 광주전자공교 교장, 전교조 광주지부장,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 이력을 갖고 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교육 희망네트워크에서 공동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교직에서 퇴직한 뒤 ‘사람과 교육’ 포럼을 출범시키고 시민 중심 교육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포럼에서는 ‘함께 사는 세상, 사람을 키우는 광주교육을 꿈꾼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모두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교육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

고 성공을 경험하는 교육 등을 실현 방안으로 제시했다.

오경미(62) 출마예정자도 ‘광주 최초의 여성교육감’을 목표로 자신감 넘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중등교장단 광주협의회장, 전남대 총동맹회 상임부회장, 광주여성총동맹회 수석부회장을 맡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출신학교 동문과 일선 교장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선 학교 교사와 시교육청 장학사, 장학관, 중등교육지원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등 30여 년 넘게 교육 현장과 정책의 중심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약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수업기법’, ‘소통감성 교육’,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 강의를 진행하며 새로운 교육적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는 각종 연수를 진행하며 학교와 가정을 잇는 기교 역할을 해왔다.

두 번째 도전에 나서는 정성홍(63) 출마예정자도 지난 선거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 출마예정자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주민주진보교육감 단일출마예정자로 나서 21.86%를 득표했으나, 이정선 현 교육감에게 13.05% 표차로 고배를 마셨다.

정 출마예정자는 최근 교육 재정, 교권 보호, AI 교육 등을 주제로 4차례 토론회를 열어 정책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박근혜퇴진광주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와 광주교육네트워크 위원장을 맡았고, 지금도 시민단체, 교사 네트워크와의 연대를 통해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그는 청렴한 광주교육을 회복하고 사람 중심의 디지털 교육으로 전환해 아이들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광주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김대중 독주 속 교육계 인사들 도전장

전남도교육감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현지 대 다자’ 구도로 정리되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대중 현 교육감에 맞서 강숙영 전 전남도교육청 장학관과 김해룡 전 전남교육청 여수교육장, 문승태 순천대 부총장,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선거 8개월여를 앞둔 현재까지는 ‘현지 프리미엄’을 앞세운 김대중 교육감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는 분위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 교육감이 3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며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도전자들의 지지율은 분산돼 있어, 선두에 있는 현직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깜깜이’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나는 다수의 부동층을 누가 흡수할 것인지와 지역별·연령별 동원력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넓게 분포한 지역의 특성상 동서 투표 성향이 선거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농어촌·소규모 학교 유지와 통폐합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전남은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심해 학교 통폐합과 학급 운영, 교원 배치 등 유권자들에게 민감한 이슈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반면 여수·순천·광양·목포·나주 등 도시권에서는 교육 경쟁력·진학·특색과 교육 중심의 공약이 효과적이다.

유권자 성향 면에서 보면 전남은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이 강세인 지역이다. 따라서 정당·시민사회 인사들의 연대 지지 선언이 교육감 선거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

또한 인지도 높은 인물이 추가로 등장하거나, 현직에 대한 정책 성과나 의혹이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면 부동층 표심이 요동칠 수 있다.

출마예정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김대중(63) 교육감은 지난 3년 동안 ‘전남교육 대전환’을 기치로 교육의 본질 회복과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기반 마련에 주력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남겼다.

‘공존교실’, ‘2030교실’ 운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였고, 학생주도 기후환경 캠페인, 헌법교육, 전남의(義)교육 강화 등은 교육이 삶과 연결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줬다.

작은학교 특성화, 농산어촌 유학, 글로벌 클러스터 운영,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모델을 실현하는 성과도 올렸다.



강숙영·김해룡·문승태·장관호·최대욱 단일화 변수 ‘깜깜이’ 교육감 선거...다수 부동층 표심 잡기 주력

또 전국 최초 학생교육수당 지급, 교육 발전특구 최다 지정, 국제교육교류 확대는 ‘K-교육’의 길을 전남이 열어나가고 있음을 알렸다.

이를 토대로 김 교육감은 시도교육감 교 유지와 통폐합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전남은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심해 학교 통폐합과 학급 운영, 교원 배치 등 유권자들에게 민감한 이슈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김 출마예정자는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등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출마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왔다.

10년 간 장학사·연구사·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을 거쳤고, 창평중 교감, 여수충무고·순천복성고·문향고 교장, 전남교육청 자연탐구원장 등 20년 넘게 교육 일선과 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최근에는 환경에 관심을 보이며 저탄소 교육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실력 중심의 교육에서 인성과 공동체 가치를 키우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구상 중이며, 신뢰의 기반 속에서 선순환 구조의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해룡(60) 출마예정자는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며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 교사와 교장, 교육연구사, 장학관, 교육장 등 37년 동안 교육 현장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교육대전환 포럼을 통해 인성 중심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며 전남 교육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는 ‘아이 중심, 교실 중심, 미래 중심 전남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인성교육 △기초학력 향상 △올바른 역사인식 △학생 맞춤 진로, 진학교육 △미래교육

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5대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문승태(62) 출마예정자도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 출마예정자는 현재 순천대 글로벌대 학 운영에 주력하면서, SNS 등을 통해 ‘지역과 교육은 하나로, 지역 없이 교육 없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교육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16년간 중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교육부와 대학에서 10여년 동안 다양한 보직을 거쳐 교육 현장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전남만의 특화된 교육모델 구축 등 지역소멸 대비와 연결된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교육의 분절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장관호(58) 출마예정자도 최근 교사직을 내려놓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25년간 일선 교사로서의 풍부한 경험, 전교조 전남지부장과 전국 정책실장,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등을 역임하며 민주진보진영 내에서도 입지를 다져왔다.

올해 초 순천과 목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전남교육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지역민과 소통한 데 이어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열어 지지층을 넓혀가고 있다.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도 최근 출마 의사를 밝혔다.

최 전 부회장은 전남대 사범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교육대학원 총학생회장,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NAVER 광주바로연

편안한 건강한 한가위

바로연

바른 만남 바른 결혼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대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내·09·0005호